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도교육청, 도내 국·공·사립학교에 현장체험학습비 158억9000여만원 교복구입비 103억7700여만원 등 투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국·공·사립학교에 현장체험학습비 158억9,000여만 원, 교복구입비 103억7,700여만 원 등 총 262억6,800여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고·특수학교의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1인당 지원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이다.

인원은 초등학생 1만6,559명, 중학생 1만9,609명, 고등학생 2만1,970명 등 총 5만8,132명이다. 올해 현장체험학습 지원 인원은 전년대비 2만6,000여 명 증가했다.

또 교복구입비는 교복착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통한 학생 전원에게 현물(교복)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2023년 지원 인원은 중학교 1만7,086명·고등학교 1만7,507명 등 총 3만4,593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북의 한 아이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입학준비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까지 포함하는 전북에듀페이를 도입해 학습비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2일 창조나래 제3회의실에서 2023년 개인 교육기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개인 교육기부단 발대식

공모 통해 51명 선정… 멘토링 등 프로그램 다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창조나래 제3회의실에서 2023년 개인 교육기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기부자 51명이 참석했다.

개인 교육기부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기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인력풀이다. 이들은 각자의 우수한 역량과 재능을 활용해 멘토링, 전문 분야 강연,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위촉장 수여와 함께 개인 교육기부단 운영 방법, 교육기부 활동 절차 및 프로그램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학부모 코딩 교육 체험활동, 문화예술, 4차 산업혁명의 만남, 학교폭력 예방 지도 스토리텔링 등 기존 교육 기부 참여자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전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인 교육기부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고1·2학년생 대입 준비 방법 안내

도교육청, 15일 수능 학습법·대입전형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5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수능 학습전략 및 대입전형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대입제도를 학생?학부모에게 정확히 안내해 대입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대입 반영 항목이 축소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특히 2024년 대학입시는 수시 모집인원 비율이 79%, 정시 모집인원 비율이 21%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의 정시 선발인원은 35.6%로 정시 수능 전형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단순히 대입전형을 안내하기보다는 수능 학습법까지 안내함으로써 학생·학부모가 대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15일 오전 10시~12시 30분까지 고1·2학년 학생들의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수능 학습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다. 평내고 박봄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5시까지 종합적인 대입전형 준비 방안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 윤윤구 교사가 강사로 나서 '고1·2를 위한 진로탐색 및 대입준비 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두 강사 모두 EBS 대표강사로 활동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교사들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달라지는 대입제도로 인해 학생·학부모들이 대입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포함해 대입정보 박람회,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학부모를 위해 영상으로 촬영, 전북교육청 유튜브 꿈사다리TV(https://www.youtube.com/@jbedumovie)에 탑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정부 경영평가 '최우수'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권대규)는 중소벤처기업부 2023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평가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단계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지원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차년도 지원프로그램 운영 계획, 홍보 실적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

전북대는 현재 전주와 완주, 군산에 4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63개의 지역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2년 이상 계속기업은 매출 44.8%, 고용 16% 상승했고, 2022년 보육기업 총매출 657억, 고용 274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외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기업성장 지원 연계로 매년 95%이상의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팔복동에 위치한 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건물을 희망전북 POST-BI로 위탁 운영하며 보육센터 졸업 기업의 성장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체계적 지원 역량을 인정받아 2023년 전라북도 운영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BI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3년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북지역 주력산업인 농식품 바이오 분야 지역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스케일 업을 위한 교육, 마케팅 등을 단계별 집중 지원한다./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광역형 공동통학구 운영 방침 환영"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광역형 공동통학구 운영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계획에서 작은학교를 10명 이상 60명 이하, 큰학교를 800명 이상인 초등학교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만 어울림학교로 지정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전북지부는 "10명 미만은 무조건 통폐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활성화 돼 다른 시·군 학생들이 자차를 이용해 많이 다니고 있는장승초와 같은 학교의 학생 수는 60명이 넘어서 이 사업에서 배제된다는 것. 이에 인원수 기준을 없애던가, 굳이 둬야한다면 학교소재지 거주 학생수 60명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언론에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운영계획을 찾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미완이라 공개 전이라 할지라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최근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도시지역 과대·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시·군 지역간 경계를 뛰어넘는 광역형 공동통학구 운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서 다뤄진다

도교육청, 학생인권보호 후퇴 우려에 "학생인권 조례는 존치"

민노총 전북 "학생 인권·교권 부당 대립… 조례안 부결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1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이에 앞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현재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학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 추진 및 침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도교육청 전담기구에서 상담, 구제신청, 조사까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상담, 조사, 관리를 병행한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인권정책, 인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등 3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끝으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폐지를 통한 학생인권보호 후퇴 우려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를 신설해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 인권 침해 사안 심의 뿐만 아니라 인권 제도, 인권 정책, 권리 구제 등을 심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별개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존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도의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부당하게 대립시키는 조례안을 부결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북본부는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현행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조항 대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를 두던 센터, 위원회 등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소관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정의 규정만 남은 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조례안에는 인권교육 등 인권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그간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은 위탁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조례안에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없던 민간위탁 조항이 삽입된 것은 인권 행정에 관한 전북교육청의 책임을 축소시키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 재선정

전북대, 베트남 빈 대학 수의학과 신설·축산 전문가 양성 수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에 재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7억 규모의 국제협력선도대학지원사업(미얀마 다곤대학교)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 간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베트남 빈 대학교의 수의학과 신설 및 축산 전문가를 양성, 수의·축산분야 교육·연구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27여억 원을 지원받아 빈 대학교 수의학과 신설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술보급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수의학 전공을 신설하고, 기존의 축산 전공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베트남 중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수의·축산학부로 육성함으로써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한 베트남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수산양식·축산학과에서 축산 전공을 분리하고 수의학 전공을 신설하여 수의·축산 학부를 개설하고, 해당 학부의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한다.

베트남의 경우 지역사회의 수의·축산 전문 인력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베트남 중북부 지역의 양돈 규모가 3,000여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지역에서 수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은 단 4개에 불과하다.

이런 실정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의사 수 대비 배출되는 수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산업동물에 특화된 수의사 양성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북대의 국제협력선도대학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업 책임자인 김남수 교수(수의학과)는 "이번 사업은 현지 수요를 반영한 베트남의 수의학과 신설 및 축산분야 교육·연구역량 강화사업으로 수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만족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이라며 "베트남의 발전에 나아가 수의·축산 분야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세부분야를 담당할 양질의 교수요원 확보, 수의학 전공과 축산학 전공으로 구성된 수의·축산 학부를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재편성함으로써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는 성과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ICC 월드 오픈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최근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ICC 월드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ICC는 기업협업센터(Industrial Cooperation Center)의 줄임말로, 대학의 인프라와 강점을 살려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12일 전주대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ICC 월드는 SPOT Virtual(https://spotvirtual.com/) 3D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작됐다. 현재 문화체험관, 학과 소개관, 이벤트관, 메타랩 연습실, 가족회사 소개관, 마스코트 기념품 홍보관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SPOT 플랫폼은 학생들이 다양한 가상 공간을 직접 제작하고 손쉽게 창작물을 업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작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다.

한편 전주대학교의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ICC 월드는 http://abit.ly/전주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전북연구개발특구 이노폴리스 지원 수행기관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3년 전북연구개발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다.

이 사업은 '기술창업 기반 지속 가능한 글로컬 창업기업 육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창업아이템 검증 플랫폼 개발 및 기술 연계형 창업자 발굴·육성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로컬콘텐츠 기반 창업자 발굴 및 육성과 이를 공공기술과 연계한 사업화와 발굴된 아이템의 검증 프로그램, 판로개척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자체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구성해 창업기업을 성장·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되면 단계별 모의 IR 발표를 통해 시제품 제작비 300만 원을 3단계를 통해 지원받으며, 시제품 제작 후 단계별 검증을 통한 피봇팅 기회까지 주어진다.

전주대학교 이상우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장은 "전북 특구 거점대학으로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을 창업기업과 연계시켜 기술창업자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전북지역 (예비)창업자 또는 2023년 4월 1일 이후 기 창업자이며, 지역 내 로컬콘텐츠를 활용한 기술 연계형 창업자들과 일반 기술창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26일까지로, 자세한 문의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담당(063-220-2848) 및 홈페이지(http://startup.jj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